

# 말씀의 샘

## 감정과 믿음 <요한복음 11:38~44>

오늘 본문은 유명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평소 자주 가시던 베다니가 배경입니다. 그 중에서 마르다, 마리아와 나사로 남매의 집을 자주 방문하셨고 각별히 그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이 좋아했고 방문하실 때마다 예수님에게 음식도 대접하고 잠자리도 제공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든 것입니다. 무슨 병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급하고 위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매들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보통 사이도 아니고, 오빠가 죽을 병이 들었다면 예수님께서 만사 제쳐놓고 달려와 줄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계셨던 곳을 수소문해보니 요한이 처음 세례 주던 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요한복음 1:28) 베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옛 영어성경에는 베다바라로 되어있지만 원문과 한글성경에는 베다니로 기록되어있습니다) 같은 베다니라는 지명이지만 다른 곳입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던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에 2.8KM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지만 예수님은 요르단 영토에 속하는 또 다른 베다니 지역에 계셨습니다. 지명이 같은 두 베다니 사이 거리는 직선으로 30킬로미터 정도입니다. 유대 광야길이고 가파른 길이기엔 하룻길을 걸어서 가야하는 거리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낸 직후, 나사로는 죽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더 유하시고 하룻길 걸려서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 동네로 갔을 때는 이미 죽은 나홀이 된 걸 보면 그렇습니다.

오빠의 갑작스런 애석한 죽음 앞에 그들은 몹시 슬펐으며 가장이었던 오빠가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누구보다도 한 걸음에 달려와 줄줄 알았던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이 다 끝난 뒤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마리아는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섭섭한 감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평소 마리아였다면 달려 나가서 맞았겠지만 섭섭한 마음과 상실감이 컸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나가서 쌓여있는 섭섭한 마음부터 토로합니다. "주여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정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2가지로 나누어 묵상하고자 합니다.

### 첫째, 감정이 믿음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더 큰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섭섭한 마음은 상한 감정입니다. 때론 새 역사를 기대할 수 없도록 철벽을 치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5:15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금 내가 당한 슬픈 일, 마음 상할 일, 또는 좋은 일등 모든 상황 속에서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집중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제물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또한 내게 계속 기대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 마음 상할 일이 있을 때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시간은 해방기 전에 감정의 공격이 참 많습니다. 그때도 잘 생각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얻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이 상한 감정들은 낚시바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물고 끝까지 갈때가 많습니다. 몸부림치고 벗어나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1:39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홀이 되었으매 벌써 뉘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상한 감정을 무덤 앞까지 가지고 갑니다. 마르다의 말 속에 섭섭함과 한심함의 감정이 불쑥 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오시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내고 기다렸는데 왜 이제야 오셔서 썩어서 뉘새가 나는 무덤 문을 열라는지... 참 한심하고 답답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나사로를 묻으며 상한 마음, 주님을 기다리다 섭섭했던 감정들이 무덤 앞까지 와서 주님의 하시려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한 감정을 그대로 두면 무덤 앞까지, 주님이 일하실 그 현장 앞까지 가서 주님의 새 역사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를 반드시 살려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1:3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4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주님은 이미 마르다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오셨습니다. 감정이 상하면 주님의 이 놀라운 일을 생각지 못하게 하고 자기 과거에 상한 감정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그동안 살면서 받은 오랜 상처, 쓴 뿌리, 고생하며 생긴 모진 감정들을

모두 주님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서 그 보혈로 다 씻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둘째, 감정이 약속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아만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람의 군대장관으로서 왕의 신임을 받는 유능한 장수였지만 나병에 걸린 환자였습니다. 자기의 계집 중 하나가 나아만에게 엘리사에게 대한 정보를 주었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엘리사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나약한 이스라엘의 시골 선지자가 나와 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주고 종을 보내어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하고는 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문전박대를 당한 것입니다. 그 순간 나아만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병으로 고생하며 상한 마음도 있었고 선지자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나아만은 중요한 치유의 약속을 저버릴뻔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만류로 약속을 다시 붙잡고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씻으며 나음을 입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걸 놓치게 만든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1:39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홀이 되었으매 벌써 뉘새가 나나이다 40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마도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마르다를 크게 책망하신 듯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마르다가 그 말을 생각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구절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책망은, 감정에 사로잡혀있는 마르다를 정신 차리게 만든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23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11: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이나 마르다에게 오라비가 살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가 대답도 했습니다만 슬픔과 상실, 섭섭함의 감정이 한번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미 마음 속에서도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정작 무덤앞에서는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마르다의 감정 때문에 귀로 들은 약속이 흘러가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버려야 약속이 들리고 보입니다. 감정은 안개와 같습니다. 그 안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시야를 가립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을 약속위에 두고 선후하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생각한 것 보다 더디 이뤄질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7년 2월 19일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 2017. 2. 26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대표기도 ----- 윤 유진 셀장

헌금

성경봉독 ----- 출애굽기 35:20~29

말씀선포 ----- 이 강화 목사

### 드림과 예배

축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 예배안내

주일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예배 : 수요일 오후 8:00

금요예배 : 금요일 오후 8:00

말씀의 역사와 영성의 생명력이 있는  
DURANNO CHURCH  
두란노교회

